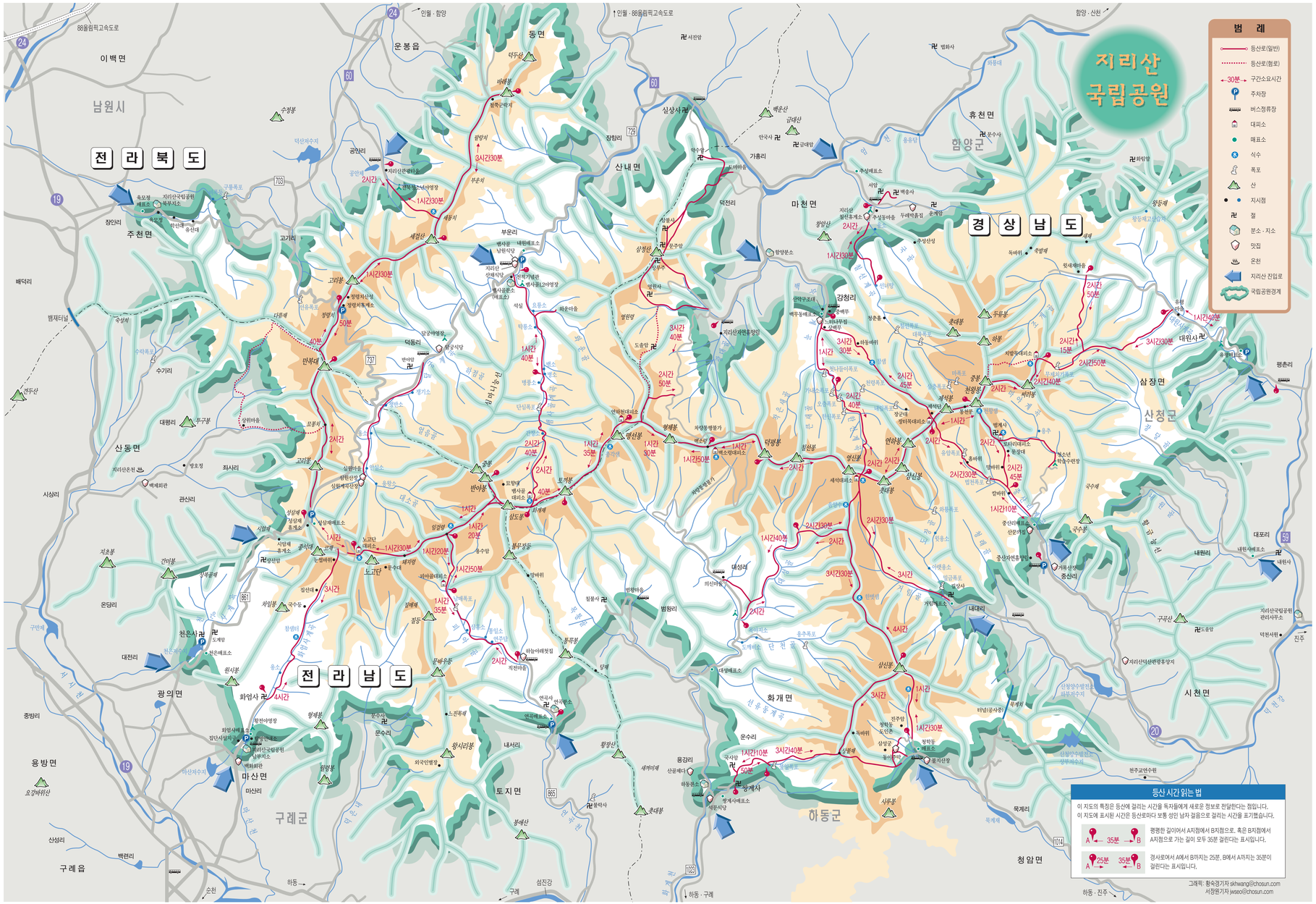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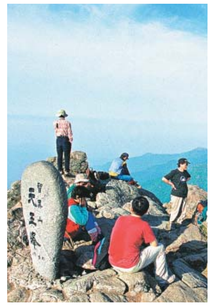


완만한 경사의 뱀사골, 노약자도 山行가능

지리산 등반 코스 7選



■ **피서 산행지로 인기높은 뱀사골**

반야봉(1,732m)과 명선봉(1,586.3m) 사이로 뻗어내린는 뱀사골은 지리산 내 수많은 골짜기 가운데 피서산행지로 인기높은 골짜기다. 요룡소, 뱀소, 병소, 병풍소, 간장소 등 비경이 연이어짐 뿐더러 나무가 우거지고 수량이 넉넉해 언제 찾아도 경관이 뛰어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뱀사골대피소에 이르기까지 줄곧 완경사로 이어져 노약자들도 부담없이 오를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뱀사골은 계곡의 오염을 막기 위해 98년 7월1일부터 계곡휴식년제 구간으로 지정, 계류가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등산로는 개방돼 있다.

골 삼단의 뱀사골 대피소까지 5시간 정도 걸리는 이 코스는 주능선 상의 화개재로 오른 다음 시계 노고단~성삼재로 이어 담양 산행으로 마치거나, 동쪽 주능선을 따라 연하천~벽소령~세석을 거쳐 천왕봉까지 뻗기도 한다.

■ **절경의 폭포, 소와 담의 연속 피아골**

지리10경 중 하나로 꼽히는 '직전단풍(稷田丹楓)'은 바로 피아골 입구 직전 부락 일대의 단풍 절경을 일컫는다. 피아골은 이러한 단풍 절경 때문에 단풍 산행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잠룡소, 삼홍소, 통일소, 연주담, 남매폭 등 자연미 뛰어난 소와 담, 폭포가 골을 따라 연이어져 여름 계곡 산행지로도 인기 높다. 계곡풍광이 수려한 피아골대피소까지는 2시간, 대피소에서 임걸령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

■ **시원한 암릉길도 안은 대원사 코스**

천왕봉 동단의 코스인 대원사 기점 산행은 비교적 호젓한 맛이 있다. 등산로 중간에 지리산에서 불일폭포 다음으로 큰 무제치기폭포를 볼 수 있고, 지리산 유일의 암릉길인 써리봉 암릉을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코스다. 등로보다는 종주산행을 마치고 하산로로 이용하는 코스다.

대원사 코스는 유평 마을~무제치기폭포~치밭목대피소(4시간), 윗새재 마을~무제치기폭포~치밭목대피소(3시간 30분) 2개 코스로 나뉜다. 각 기점을 출발, 치밭목을 거쳐 천왕봉(3시간)을 향해 산행하거나 써리봉을 최종 목표로 2개 코스를 잇는 산행을 시도한다.

■ **호젓하고도 장쾌한 남부능선**

주능선 상의 세석평전에서 삼신봉(1,284m)으로 이어지는 남부능선길은 지리산 마니아들이 특히 좋아하는 한갓진 능선 코스다. 산행 기점은 삼신봉 남서쪽과 남쪽 골짜기에 자리잡은 쌍계사, 그리고 도인촌 청학동이다.

쌍 계사 ~ 불일 폭 포 ~ 상 불 재 ~ 내 삼 신 봉(1,355m)~삼신봉(외삼신봉) 구간은 5시간, 청학동~삼신봉은 1시간40분 정도 걸린다. 삼신봉에서 한벗샘과 음양수를 거쳐 세석평전까지는 4시간 소요. 따라서 쌍계사에서 출발할 경우, 아침 일찍 출발해야 숙박이 가능한 세석대피소까지 갈 수 있다.

■ **종주파들이 최고로 꼽는 주능선 종주길**

노고단~천왕봉 간 25.5km의 주능선은 종주산행의 전범(典範)으로 등산꾼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다. 지리산 전체를 조망하며 산행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데, 예전에는 화엄사를 기점으로 잡았지만, 성삼재 도로가 생긴 뒤로는 대부분 차량으로 성삼재까지 오른 다음 산행에 나선다. 대개 노고단~세석, 세석~천왕봉~중산리(또는 백무동) 2개 구간으로 나누어 1박2일로 시도하는데, 천왕봉 일출을 목표로 한다면 첫날 장터목대피소에서 머무는 게 유리하다. 보행 능력에 따라 2박3일이나 3박4일로 일정을 잡아도 좋다. 중간에 노고단, 연하천, 벽소령, 세석, 장터목 등에 대피소가 있다. 천왕봉에서 하산은 중산리(3시간30분 소요), 백무동(3시간) 또는 중봉~써리봉~치밭목대피소를 거쳐 대원사(5시간30분)로 한다.

■ **관리사무소가 안내하는 생태탐방**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대원사계곡) △깊은 산골 중산리에서는 △뱀사골~구룡 자연해설 프로그램 △화엄사 생태탐방 △지리산 천왕봉 탐방 △반달곰과 함께 떠나는 아고산대 자연생태계 탐방 △지리산 왕등재 고산습지 탐방 △뱀사골 고산와 운골 생태탐방 등, 탐방 또는 1박2일로 환경해설 생태탐방 코스를 실행하고 있다. 각 기점별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만 받고 전문가가 안내한다. 문의 전화 055-972-7771~2.

* 지리산 국립공원은 공원 입장료 1인당(어른 기준) 1,300원씩 받는다. 이밖에 기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가 추가된다. 화엄사(1,700원), 천은사(1,300원), 연곡사(1,300원), 쌍계사(1,500원).

지리산 각 산행기점에는 거의 다 주차장이 갖춰 있다. 주차료는 성삼재 주차장에 한해 최초 1시간 1,000원, 1시간 이후 10분당 200원씩 추가, 담일 한도액 10,000원씩 받고, 다른 지역은 담일 4,000원씩 받는다.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3개 도에 걸쳐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은 도별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산행 문의는 지역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산리·백무동·쌍계사·대원사 기점은 동부본소 전화 055-972-7771, 화엄사·천은사·성삼재·피아골 기점은 남부지소 전화 061-783-9100, 뱀사골·구룡·내령매표소 기점은 북부지소 전화 063-625-8811. 또한 기상특보시 출입을 통제하니, 출발 전 반드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의 지리산 항목에 들어가 확인토록 한다. www.npa. or.kr/chiri.

하동 재첩국·남원 추어탕… 은어회 제철

지리산 자락 맛집

지리산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산인 만큼 산자락이 넓고 먹거리집들도 수없이 많다. 산채음식이나 닭고기 요리는 기본이고 온갖 음식들을 다 골라 먹을 수 있다.

■ 산청

● **지리산덕산관광휴양지(055-972-6269)** 산청군에서 천왕봉 정상을 오르는 가장 가까운 중산리 코스에 조성됐다. 지난 7월에 문을 연, 식당과 민박방을 갖춘 휴양시설이다. 휴양지 내의 식당 '가야83'은 대도시 모범식당 수준 이상의 시설과 서빙으로 손님들을 맞고 있다. 4인분 파전이 1만원, 칼국수 3000원, 닭계장 5000원, 150명 동시 수용에 주차공간이 넉넉하다.

● **거묵산장(055-973-9415)** 중산리 버스 종점 바로 위쪽에 있는, 화가부부가 운영하는 식당. 흑돼지구이 1인분(160g) 6000원.

● **산꼰의 집(055-972-1212)** 국립공원 매표소 앞쪽 4층 들집 1층에 있는, 산꼰들의 단골식당. 산채비빔밥 5000원, 산채정식 6000원, 더덕구이 2만원, 위층은 민박시설.

● **웅석관광농원(055-973-8565)** 천왕봉과 맥을 함께 하는 웅석봉(1009m) 동쪽자락 산청읍 내리 경호강변에 위치, 백두대간 종주팀들과 경호강 래프팅팀들의 숙식 캠프로 많이 애용되고 있다. 백반 5000원, 염소불고기 1인분(200g) 1만5000원.

■ 구례

● **백화회관(061-782-4033)** 지리산자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는 음식점. 2대째 경영하고 있다. 산나물 한정식 특 1만5000원×2인분, 보통 8000원×2인분.

● **백제회관(061-783-2867)** 산수유 노란 꽃이 피고 빨간 열매가 맺는 산동마을 지리산 온천랜드 건너편에 있는 식당. 토종흑돼지구이 1인분(200g) 8000원, 약초로 담근 50여종의 약주가 전시되어 있다.

● **산아래첫집(061-782-7460)** 피아골의 절은 산지기 부부가 담근 많은 종류의 산술 중 하나를 골라 하산 길 간배를 드는 산꾼들이 많다. 산채비빔밥 5000원. 산채백반 6000원.

● **심원계곡산장(061-782-1101)** '하늘 아래 첫동네'로 불리는 심원마을 제일 안쪽에 있는 일명 '양소령남댁'. 이 집을 일군 양만석옹이 예비역 육군소령이라 유래된 이름이다. 개발력 주 땀두를나물 곰취 평풍대 다래순 제보 젠피 죽순 등의 나물들로 산채정식(8000원)을 차려낸다. 민박방 2층에서 보는 노고단이 유난스럽게도 아름답다.

● **심원산장(061-782-9110)** 심원마을 김동현 이장댁. 10여개 여느 음식점들과 마찬가지로 더덕구이나 닭백숙 흑돼지 고기 등을 먹을 수 있다. 계곡 물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 '별볼일'이 있지만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면 마음씨 고운 '이장댁 사모님' 김애순씨로부터 크게 야단을 맡는다.

■ 하동

● **산골제다(055-883-2511)** 전국 각지에 산재한 녹차 냉면집의 산골 녹차냉면을 생산하고 있다. 이 상품으로 김종관 대표는 특허를 받았다. 녹차냉면(사진) 5000원, 녹차국수, 녹차수제비, 녹차칼국수 각 4000원.

● **석문식당(055-883-1723)** 쌍계사 입구에 있는 30년 전통의 집. 여느 집들과 같은 음식들을 차려지만 석문식당의 김부각, 가죽장아찌, 가죽자반은 이 집만의 특별한 상품이다.

● **강변회식당(055-883-4280)** 화개천 건너편 옛날의 장터 강변에는 집주인인 어부가 섬진강에서 잡아 올린 물고기들로 음식을 차려낸다. 재첩을 만난 은어회와 구어, 튀김(1쟁반 각 2만원)을 차려 낸다. 동자개(빠가사리)찜을 잘한다.

● **동이주막(055-883-3934)** 청학동 삼성궁 입구의 동이주막은 대봉밥(1만원)과 댓잎냄면(6000원)이 별미다. 댓잎냄면은 특하를 받은 음식이고 대통밥(사진)은 1시간 전에 주문해야 한다. 주인 강대주씨는 신지식인으로 지정받은 암업인.

● **불지산장(055-882-7071)** 청학동 미륵정사 바로 앞쪽에 있는, 민박을 겸하고 있는 식당. 닭백숙 3만원, 매미들의 합창을 들으며 갖가지 약초들로 담근 약주(신선주 1만원) 한잔 마시면 신선이 될 것 같은 분위기. 성수기에도 같은 값 3만원만을 고집하는 황토방 5칸으로 민박손님을 맞는다.

● **동홍횟집(055-883-8333)** 하동은 해장국의 여왕으로 불리는 재첩국 천국이다. 재첩에 부추를 듬뿍 썰어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 끓인 뽀얀 재첩국 한 그릇이면 쓰리고 더부룩한 속이 후련해진다. 이 식당은 하동 재첩국의 종가격, 재첩백반 재첩부침 각 5000원, 재첩진국 백반 7000원, 재첩회덮밥 1만원, 재첩회 2만~3만원, 포장판매, 택배판매도 한다.

■ 함양

● **느티나무집(055-962-5345)** 백무동코스 한신계곡으로 오르면 마지막에 만나는 집, 돼지왕소금구이 1인분(200g) 6000원, 송어회 2만5000원, 토종닭백숙 3만원.

● **지리산철선휴게소(055-962-5494)** 추성매표소 바로 앞집으로 철선계곡으로 정상을 오르내리는 골수산꾼들과는 오랜 인연을 맺고 있다. 염소를 기르는 집주인 허상옥씨의 초양농장에서 잡아온 염소로 요리를 만든다.

● **두레박휴집(055-962-5507)** 벽송사와 가까운 어름터의 민박집, 백반 5000원, 닭고기와 돼지고기 염소고기도 먹을 수 있다.

● **예원(055-963-5444)** 읍내 중심가 용평리에 있는, 현지 명사들의 사랑방 같은 집, 차를 마시고 가볍게 요기도 한다. 조선조 5현 중의 한 사람인 정여창 선생 종가의 손녀 정현영 여사가 운영하는 아담한 정원이 있는 명소.

■ 남원

● **달궁식당(063-626-3473)** 전형적인 깊은 산골의 식당이자 민박집, 식당 앞에 서 있는 600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이 집의 트레이드 마크.

● **뱀사골남원식당(063-626-5770)** 버스편이나 기상정보를 언제라도 정확하게 제보받을 수 있기에 이 집 전화번호는 산꾼들이 필수적으로 챙긴다. 귀환 길 버스시간을 기다리며 산채비빔밥(5000원)으로 배를 채우며 술 한잔을 걸치는 집이다.

● **지리산산채식당(063-625-9670)** 뱀사골 계곡입구 큰길가 달궁계곡 반선에는 두 곳의 집단시설 지구가 형성되어 있다. 그 위쪽 지구에는 12개 업소가 성업 중인데 그중의 한 곳, 산채비빔밥 6000원, 산채백반 7000원, 산채정식 1만원.

● **새집(063-625-2443)** '남원 추어탕에 하동 재첩국'이 지리산 자락의 음식을 대변한다. '새집'은 남원추어탕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집이다. 남원 시내 천거동 MBC 옆에 있다. 광한루원에서 500여m 거리, 추어탕 7000원, 숙회 2만5000원, 튀김 1쟁시 2만원.

/박재곤·산악인 '산따라 맛따라'저자

◇화가 박수룡이 그린 '천왕봉 야생화'.

지역별 관리소 및 매표소 전화번호

동부본소(지역번호 055)

본소(중산리)	972-7771
함양군소(백무동)	962-5354
하동본소(쌍계사)	883-1750
중산리분소	972-7785
유평매표소	972-7775
창착동매표	883-2609
쌍계사매표소	883-7019
내원매표소	972-4943
백무동매표소	963-1260

남부지소(지역번호 061)

지소(화엄사)	783-9100
성삼재분소	783-9109
연곡매표소	783-9110
천은매표소	781-9108
화엄매표소	783-9105
탑정안내소	783-9106

북부지소(지역번호 063)

지소(육모정)	625-8911
뱀사골분소	625-8915
내령매표소	625-8914
정령치휴게소	625-1172

아생동물 보호를 위한 통제 지역

통 제 구 역	면적	비 고
노고단~석탈재~지말목	102.17㎢	야생동물보호
만복대 자연보전지구	3.5㎢	야생동물보호
칠불사~토끼봉	4.9㎞	탐방로
장터목대피소~가내소폭포	4.2㎞	탐방로

지리산국립공원 내 자연 휴식년제 구간(구역)

거리	면적	시행기간(년)
세석평전 철쭉군락지	30,000㎡	'03~'05
장터목 훼손지 복구지역	30,000㎡	'03~'05
제석봉 구상나무 식재지	59,500㎡	'03~'05
왕등재습지	30,000㎡	'03~'08
선녀탕~천왕봉(절선계곡)	6.7㎞	'03~'05
노고단 정상부	7,576㎡	'03~'05
노고단~심원	4㎞	'03~'05
반야봉~심원	10㎞	'03~'05
노고단~왕시리봉~구산리	16㎞	'03~'05
뱀사골계곡(요룡대~작사 위)	6.4㎞	'03~'05
연하천 주목군락지	15,000㎡	'03~'08
반야봉~정기소	8㎞	'03~'05
반야봉 정상부	30,000㎡	'03~'05

교통

중산리·대원사

진주→중산리 = 진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시간 간격(07:00~21:10)으로 운행하는 중산리행 버스 이용. 시외버스터미널 전화 055-741-6039.
진주→대원사 = 시외버스정류장에서 1시간 간격(06:30~20:30)으로 운행하는 직행버스 이용.

화엄사·성삼재

구례→화엄사 = 구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30분 간격(05:30~20:30) 운행하는 군내버스 이용. 시외버스터미널 전화 061-782-3941.
구례→성삼재 = 구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일 7회(06:00, 08:00, 10:00, 12:00, 14:00, 16:00, 막차 17:00) 운행.

백무동

함양→백무동 = 함양 시외버스터미널에서 30분~1시간 간격(07:00~18:30)으로 운행하는 안될 경유 백무동행 시외버스 이용, 터미널 전화 055-963-2281(~2).

뱀사골(반선)

남원→반선 = 남원 공용버스터미널에서 1일 19회(07:30~20:00) 운행하는 반선행 직행버스(전화 063-633-1002)나 1일 3회(07:20, 09:30, 15:35) 운행하는 달궁행남원여객(전화 063-631-3116) 시내버스 이용.

구룡

남원→육모정 = 남원 시외버스정류장 부근 동림주유소 앞 정류장에서 1시간 간격(06:10~20:30) 운행하는 남원시내버스 이용, 20분 소요. 남원시내버스 전화 063-625-4116

피아골

구례읍→피아골 = 구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일 8회(06:40, 08:40, 09:40, 11:40, 13:40, 14:40, 15:40, 17:40, 19:40) 운행하는 군내버스 이용. 구례 군내버스 061-782-5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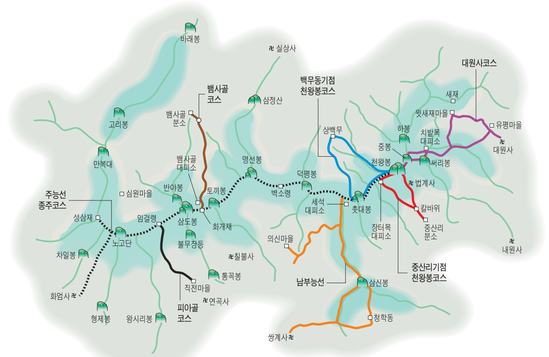
쌍계사

구례읍→쌍계사 = 구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일 6회(06:10, 08:00, 09:45, 11:00, 17:00, 18:00) 운행하는 군내버스 이용.

청학동

하동→청학동 = 하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일 5회(08:30, 11:00, 13:00, 15:20, 19:00) 운행, 하동 시외버스정류장 전화 055-883-2663.

지리산 내 대피소

대피소명	1일 수용인원(명)	1일 숙박료(원)	전화
노고단대피소	210	5,000	061-783-1507
피아골대피소	50	5,000	061-783-1928
뱀사골대피소	100	3,000	063-626-1732
연하천대피소	50	3,000	063-625-1586
벽소령대피소	150	5,000	011-854-1426
세석대피소	240	5,000	013-145-1601
장터목대피소	170	5,000	013-145-1750
치밭목대피소	30	3,000	전화 없음
로타리대피소	40	5,000	055-973-1400

* 예약은 사용일 한 달 전에 인터넷으로만 받음. 홈페이지 주소 www.npa.or.kr/chiri.